

2019.7월 제9호

BLOCKCHAIN 동향과 이슈



CONTENTS

이슈 리포트

OPINION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회원사 동향



BLOCKCHAIN 동향과이슈

2019.7월 제9호

CONTENTS

이슈 리포트	2
OPINION	38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46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59
회원사 동향	87

※ 「BLOCKCHAIN 동향과 이슈」는 본 협회 협력사인 ‘코인니스[Coinness]’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슈 리포트

- BTC, FATF 암호화폐 최종 권고안 발표에도 1만 달러 돌파
-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산업별 적용 현황

한국블록체인협회

BTC, FATF 암호화폐 최종 권고안 발표에도 1만 달러 돌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암호화폐 규제 지침 최종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였다. 지난 6월 22일~23일, 2018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1,000달러를 돌파했다. 기존에 암호화폐 업계에서 제기된 우려와 상반된 양상이다. FATF 지침 내용이 어떻길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가격 하락 우려를 했던 것일까? 구체적인 지침 내용과 업계 반응을 종합해봤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6월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가상자산서비스 제공업체에 리스크 중심 접근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을 발표했다.

FATF는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s)들은 암호화 자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 양측의 정보를 규제 당국에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최종 권고안이 제시한 필요 제출 정보에는 발신자(originator)와 수신자(beneficiary)의 이름과

거래에 사용된 양측의 계정 그리고 발신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national identity number) 등이 포함됐다. 또한 “VASPs가 사업장 관할 규제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제재 대상(sanctioned individuals)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거래를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국 정부는 오픈소스 정보와 웹 스크래핑 툴을 통해 미등록 운영업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ATF는 공동 성명을 통해 “앞으로 지침 이행을 위해 회원국에게 12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고, 오는 2020년 6월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FATF 권고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 가상자산 활동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FATF 권고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와 관련하여 각국 정부와 관할 규제 당국에 FATF 권고안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가상자산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획하는 은행, 증권브로커 등 기관들에게 FATF 권고안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Steven T. Mnuchin)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 올랜도(Orlando)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새로 적용되는 지침에선, VASPs는 전통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 자금 이체 당사자 양측의 신원 확인 필요
- ▶ 관련 정보들을 다른 가상자산 취급업체 및 사법부와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 ▶ 사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여 불법 행위 방지
- ▶ 특정 비즈니스의 위험성을 알리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또한, 그는 “우리는 암호화폐의 적법 사용은 허용하나,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에서 합법적인 용도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와 기타 규제 당국과 워킹 그룹을 구성했다”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에선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지미 송(Jimmy Song)은 최근 인터뷰 중 “FATF의 규정은 너무 가혹하고 요구 조건을 맞추기 힘들다”며 “이는 미국이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도쿄미츠비은행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사직(APAC HEAD of AMK Governance & KYC MUFG)은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VASPs에 송수신자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하며 정부 당국이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트레블 룰(travel rule)’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수신자 정보를 볼 수 없어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패트릭 김(Patrick Kim) 센티넬 프로토콜(Sentinel Protocol) 창업자도

“트레블 룰을 따르려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자의 소득규모, 재산 보유사항, 신용 정보등을 알아야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이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 산업별 적용 현황

※ 헤슬란트 6월 19일자 이슈리포트

I.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

1. 비즈니스 모델이란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은 20세기 말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독특한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특허로 출원하면서 널리 사용됐다. 벤처기업들이 벤처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사업의 내용과 특성 및 수익창출 방법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문헌적인 정의는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될 수 있으나 이를 요약하면 비즈니스 모델이란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해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을 모아 놓고 상호 관계를 모델화시켜 놓은 것¹⁾’ 이자 ‘고객 문제와 기업의 솔루션을 매칭하기 위한 상호작용과 정합성을 표현한 것’ 으로 정리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하려는 목적은 크게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와 이 모델이 사업으로서의 가능성(feasibility)이 있는가를 평가해 보기 위함이다. 따라서 인프라와 고객 가치에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는지가 비즈니스 설계에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블록체인 산업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프로젝트들이 제공하는 백서(Whitepaper)는 프로젝트가 현재 산업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가치와, 이를 위해 필요한 수단·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되는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 모델과 같은 협의적 개념에서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간의 관계 그리고 수행 주체와 자원 등 비즈니스 전반의 복합적 요소로 확대될 수 있다.

1) 출처 : 비즈니스모델의 정의와 종류 ((주)비전아레나 조용호 대표, 2013.8)

[비즈니스 모델 개념도]



출처: 핵슬란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창조경제시대 창의 비즈니스모델 탐색

[라파의 분류체계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유형]

분류	기능	수익 원천	창출 가치	핵심역량
중개형 모델	- 시장형성 - 공급자와 구매자 중개	- 입점비 - 거래 수수료	- 시장형성 - 상호연결 - 거래 효율성	- 공급자 베이스 - 구매자 베이스 - 검색 가이드
광고형 모델	- 광고 매체 기능 - 브로드캐스팅	- 광고료	- 방문 및 관심 유도 - 검색 결과	- 공급자 참여 - 트래픽 규모 - 과금 체계
정보중개형 모델	- 콘텐츠 판매 - 정보 판매 - 이용 행태	- 정보이용료	- 콘텐츠 확보 - 이용형태 모니터링	- 콘텐츠
제조형 모델	- 제조업자가 직접 판매	- 유통마진 절감	- 구매 비용 절감 - 서비스 향상	- 공급 가격
상거래형 모델	- 시장형성 - 공급자와 구매자 중개	- 광고료 - 유통마진 절감	- 시장형성 - 거래 효율성	- 공급 가격 - 공급자 참여 - 구매자 베이스
커뮤니티 모델	- 시장형성 - 가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 광고료 - 회비	- 공통관심 주제 - 정보 공유	- 참여
제휴 모델	- 시장형성 - 제휴사	- 광고료 - 거래 수수료	- 시장형성 - 상호 연결	- 트래픽 규모
가입형 모델	- 부가가치 콘텐츠 제공	- 구독료 - 광고료	- 부가가치 콘텐츠 보유	- 부가가치 콘텐츠
유틸리티 모델	-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	- 사용료	- 인프라	- 운영 관리 - 부가서비스

출처: BUSINESS MODELS ON THE WEB(Michael Rapp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슈 리포트

[비즈니스 모델 구분]

비즈니스 모델	내용	관련 업종
Solution Shop (문제 해결형)	특정 문제 진단 및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Institutions whose resources and processes are structured to diagnose and recommend solutions for complicated problems)	컨설팅 회사, 광고회사, R&D 기관, 법률회사 및 고객 지향형 제조회사 등
Value-adding process business (가치창조형)	미완성된 제품(원재료) 등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해 주는 비즈니스 (Bring things in that are incomplete or broken, add value to them, and then ship them out, repaired or more complete)	소매, 음식점, 자동차 조립공장, 정유회사 및 교육기관 등
facilitated network business (네트워크비즈니스)	동일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팔고 주고받는 비즈니스 (Same people buy and sell, and deliver and receive things from each other)	보험회사, 통신회사 등

출처: 크리스텐슨, 2009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유형]

비즈니스 모델	설명
중개업	중개인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상거래를 촉진하여 시장 창출
광고	전통적인 방송 매체 모델의 연장으로서 주로 무료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주에게 광고의 기회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음
정보 중개인	독립적으로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품과 생산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자와 판매자들의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움
판매인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들을 포함하며 정가제나 경매 등을 통해 거래
제조업자 직접 판매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망을 줄이고 소비자 정보를 직접적으로 획득
제휴	파트너 사이트가 제휴 사이트에 방문자, 회원, 매출 등을 발생시키면 제휴 사이트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음
커뮤니티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거나 맥락 광고 등을 통해 수익 창출
구독료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기적인 구독료 혹은 이용료 지불
이용당 지불	전기요금, 수도요금처럼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사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

출처: Zanten 2011.5.25

2. 토큰 이코노미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토큰 이코노미다.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의 특정 행동을 강화해야 하는데,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이를 이끄는 것이 바로 토큰 이코노미이다. 토큰 이코노미는 행동 심리학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행동 심리학에서의 토큰 이코노미는 설계자가 참여자의 특정 행동을 이끌기 위해 ‘토큰’을 보상으로 주고, 그 토큰을 ‘유·무형의 가치’와 교환되게 함으로써 그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블록체인 산업에서 토큰 이코노미는 토큰 자체에 금전적인 가치가 있어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토큰 이코노미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로젝트 생태계 확장이다. 토큰 이코노미의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주체들의 역할마다 특정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생태계 확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다. 화폐의 가치는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상승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용성과 편리성, 범용성을 이루게 되면 그 화폐 가치도 상승한다. 반대로 잘못된 토큰 이코노미 설계로 주체들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생태계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 토큰의 가치는 상실된다. 그러므로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할 때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산업과 결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특히, 현 산업에서 암호화폐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나아가 어떤 가치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참여 주체에게 이끌어낼 특정 행동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대신해 토큰 이코노미를 중점적으로 백서에 설명했으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다양한 토큰 이코노미가 설계되었다.

II. 산업별 블록체인 적용

마크 W. 존슨 교수에 따르면 비즈니스 모델은 서로 맞물려 있는 네 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다. ▲ 고객가치제안 ▲ 수익공식 ▲ 핵심자원 ▲ 핵심프로세스 이 4가지 요소는 서로 더해져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한다.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 창출의 근원 : 고객 (고객가치제안)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 연구, 고객과의 상호작용 및 접점 탐색 예) 부족한 자원, 접근성 부족, 기술 부족, 시간 부족 등 개선 등
고객가치를 전달하는 방식 (수익공식)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예) 매출 흐름(가격책정, 지불 방법, 판매량 산정방식), 비용구조(추가 매출 개발 및 계약 관리 비용), 지원 마진, 거래속도 등
고객가치를 경쟁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 역량 (핵심자산 & 핵심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원과 능력 예) 사람, 기술, 제품, 시설, 브랜드, 유통관리 과정 등

출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Harvard Businesss Review

존슨 교수의 내용을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맞춰 현재까지 등장한 산업별 비즈니스 모델을 ▲ 금융·투자 ▲ 의료·건강 ▲ 에너지 ▲ 물류·유통 ▲ 콘텐츠 ▲ 게임 등 6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암호화폐의 활용 측면을 살펴보자. 같은 아이디어도 비즈니스를 위해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펼치는가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은 상이해질 수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대다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암호화폐’ 라는 수단을 활용했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해졌으며 이 가운데 암호화폐는 그 사용 가치를 넓혀갔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 ‘핀마(FINMA)’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을 결제(Payment), 유틸리티(Utility), 자산(Asset) 등 3가지 종류로 분류했다. 이 토큰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에서 2가지 이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아래는 토큰을 활용 수단을 기준으로 세분화한 것이며 그에 대한 설명이다.

1) 결제(Payment) - 결제수단(Means of Exchange)

-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 수단으로 현재 혹은 미래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 조달 방식 : 프로젝트가 설계한 토큰 이코노미에 의해 보상을 획득하거나 외부(거래소 등)에서 암호화폐를 조달한다.
- 특징 :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결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매 기능 때문에 ‘자금세탁방지법’ 규제에 적용을 받는다.

2) 유틸리티(Utility)

- 블록체인에 기반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 인프라접근 권한(Permission)
 - 암호화폐를 소유/지불함으로써 블록체인 기반의 앱이나 서비스로의 디지털 접근권을 부여받는다.
 - 활용 사례 : 네트워크 인프라 이용 정도에 따라 과금하는 방식과 네트워크 수요량을 예상하여 사용할 만큼 암호화폐를 스테이킹²⁾하는 보증금 형태로 사용된다.
- 투표(Voting)
 -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평가(UpVoting/DownVoting)하는 수단으로

2) 스테이킹(Staking) :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암호화폐를 락업시켜 네트워크 지분(자원)을 획득하는 방식, 최근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사용됨

사용되는 경우다.

- 활용 사례 :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투표에 주로 사용되며, 콘텐츠 산업에서는 콘텐츠의 투명한 평가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3) 자산(Asset) - 가치저장(Store of Value)

- 기업의 주식, 채권 등과 유사한 기능으로 가치를 갖는 자산을 토큰화하여 암호화폐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부여하는 형식이다.
- 증권(Security)
 - 주식, 채권 등의 금융 자산 외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실물 자산을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 자산이다.
 - 특징 : 증권형 토큰의 소유는 토큰에 연동된 자산의 소유권을 의미하며, 토큰발행 주체가 창출하는 수익에 대한 배당청구 및 의사결정 권리를 포함한다.

(1) 금융·투자

- ▶ 키워드 : “국경 없는 금융·투자과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 ▶ CVP³⁾ : 서비스 절차 간소화비용 절약결제속도향상국경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에서 시작돼 P2P 대출, 거래인증, 공인인증 등 최근 핀테크 기술과 융합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금융권에서 주로 전자화폐, 해외송금, 장외거래, 데이터 저장 및 보호, 메시지 보호 및 전달 등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래내역의 위·변조가 어려워 제3자의 보증기관 없이 시스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보면 디지털화되지 않은 스위프트(SWIFT)와 같

3) CVP : ‘Customer Value Proposition’의 약자로 고객가치제안을 뜻함

은 지불 시스템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하는 데 주로 활용됐다. 개인, 비금융 및 금융서비스 회사에 대한 국제송금, 거래 및 국경 간 대출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이렉트 거래 방식으로 금융중개인의 역할을 최소화해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빠른 송금 및 결제속도를 제공한다.

뱅킹 서비스 부분에서 스타트업은 기존 금융권과는 다르게 새로운 신용점수 기준 제시를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규모가 큰 자산에 대한 분할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등 자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대출 담보물에 암호화폐를 포함시켜 채무인의 신용점수가 아닌 차용인의 블록체인 자산가치에 초점을 뒀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금융 분야 블록체인 활용]

분야	사례
청산결제	자회사간, 국가간 운영되는 청산결제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 간소화, 자동화를 위해 스마트계약 등을 활용
해외 송금	개인간, 기업간 해외 송금을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
증권 거래	주식시장(장외시장 등)에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을 적용하여 중개기관의 필요성을 없애고, 거래 시간 단축 등에 활용
투자	투자 플랫폼을 통해 창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는 투자자를 선택 하여 디지털 화폐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
보험	고가 상품(다이아몬드 등)에 대한 정보(거래 내역 등)를 등록·관리하며, 상품의 움직임을 기록함으로써 보험사기 방지와 연계가 가능
위험 관리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암호화폐 사용 시 위험 거래 탐지, 의심 거래자 경고 기능을 활용

출처: NIPA 이슈리포트 2018-제17호 블록체인 산업 현황 및 동향

금융투자 산업에서 암호화폐는 가치 저장(Store of value), 결제 수단(Means of Exchange), 유틸리티(Utility)로 주로 활용된다. 투자금의 원리금 수취권을 대신하여 토큰을 받거나, 투자하기 위해 플랫폼 자체 토큰을 구매한다. 토큰을 보유함으로써 담보 우대 적용 또는 상환할인 혜택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슈 리포트

① 투자 및 자산관리

- ▶ 투자 프로젝트 : Starbase, SALT, Cofound.it, Surely, Everex 등
- ▶ 자산관리 프로젝트 : Coindash, DCG, Hyperchain capital, Neufund, Prism 등

[집합투자 생태계]



출처: 헥슬란트(Hexlant Research)

- 집합투자⁴⁾모델 : 커스터디언(Custodian)⁵⁾은 펀드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토큰발행 및 자산관리를 수행한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출자 받은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분배금을 지급한다. 플랫폼은 각각의 거래와 중개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 수익을 취한다. 이때 투자는 플랫폼 자체 토큰으로 진행되며 거래소를 통해 환전할 수 있다.

4) 집합투자 : 집합 2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여유자금이 있는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 주체로부터 자금을 받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임대,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 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5) 커스터디언(Custodian) :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유가증권의 보관·수취결제·권리보전·외결권행사 등의 폭넓은 업무를 제공하는 상임대리인

- P2P 모델 : 생태계 플레이어는 차입자, 투자자, 플랫폼, 파트너 금융사로 이뤄진다. 투자자들이 대여금을 플랫폼의 파트너금융사(대부업체)에 입금하면 차입자가 파트너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파트너사는 대출에 따른 원리금 수취권을 본 건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대여금을 받는다. 투자자들은 차입자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게 되고 원리금 상환은 차입자가 상환할 대금을 파트너사에 납입하고, 해당 원리금을 플랫폼 업체를 통하여 본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케이스에 따라 대출상환 대상, 대출신청 접수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존 P2P 모델과 크게 차이가 없다.

② 부동산

- ▶ 프로젝트 : REAL, UBITQUITY, REX, ATLANT 등

[부동산 투자]



출처: 헥슬란트(Hexlant Research)

- 플랫폼 자체 토큰 활용 : 자본시장법상 증권거래의 중개를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토큰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를 상장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 일부 플랫폼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각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을 상징하는 토큰을 발행하여, 플랫폼 내에서 이들을 유통한다.

이슈 리포트

- 커스터디언 발행 토큰 : 커스터디언은 자산소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토큰을 발행하여 플랫폼으로 전송한다. 투자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KYC/AML 절차를 거쳐 토큰을 구매한다.

③ बैं킹 서비스

▶ 프로젝트 : SALT, RIPIO, ETHLend, WeTrust, NEXO 등

[बैं킹서비스-담보대출]



출처: 헥슬란트(Hexlant Research)

[बैं킹서비스-P2P]



출처: 헥슬란트(Hexlant Research)

- 담보 대출 : 금융 플랫폼이 대출 심사 및 승인을 진행하며 암호화폐 및 플랫폼 자체 토큰을 담보물로 인정한다. LTV를 최대 100% 인정 해주기도 하는데 이때 플랫폼은 디지털 자산 마켓을 통해 매칭 및 담보물 가치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플랫폼 자체 토큰 홀더는 담보 우대 및 상환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P2P 대출 : 대부업체가 SPV에 대해 갖는 대출 채권의 원리금 수취 권을 투자자들이 토큰으로 표상된 원리금 수취권을 가지고 양도받는다. 이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플랫폼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산을 고유자산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의료·헬스케어

- ▶ 키워드 : “맞춤형 서비스가 그렇게 대세라는데”
- ▶ CVP : 정보 주권 강화, 맞춤형 의료 서비스, 투명한 의약품 유통과정 제공, 보안성 강화, 정보교류 활성화

의료 ·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개인의 의료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들이 부각되고 있다. 기술 적용을 통해 의료정보의 보안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단 및 치료의 정확도 향상 등 의료정보 교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⁶⁾.

기존 의료정보 시스템은 의료기관 중심의 운영과 분절된 중앙집중형 데이터 관리 체계로 인해 의료정보의 교류 및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정보관리 측면에서도 의료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불가 및 투명성의 저하문제가 있었다.

6) 출처 : 헬스케어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_KHLDL 2018 보건의료 R&D 동향

이슈 리포트

블록체인 기술의 의료분야 적용으로 개인의 의료기록에 대한 주권이 각 개인에게 주어져 의료정보의 활용범위 및 활용 여부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의료정보의 보안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향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보편적인 사업 구조는 병원이 데이터 제공 동의 여부를 걸친 뒤 플랫폼에 직접 진료 데이터를 입력하고, 환자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플랫폼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 및 치료의 정확도가 향상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실시간 수집되는 PGHD⁷⁾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이 탄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에서 피트니스사까지 서비스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활용됨에 따라 환자 중심의 의료 실현과 공공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산업에서도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Means of Exchange), 인프라 접근 권한(Permission), 투표(Voting)로 활용된다.

① 의료 데이터 관리 및 공유

▶ 프로젝트 : Medibloc, Humanscape, MedRec, Paientory, Shivom 등

- 빅데이터 분석 : 진료받은 환자 또는 제휴 병원은 개인정보 동의하에 진료 데이터를 플랫폼에 업로드한다. 플랫폼은 데이터 업로드에 대한 보상을 암호화폐로 제공한다.

7) PGHD(Patients Generated Health Data) : 환자의 건강과 관련한 데이터를 직접 만들고, 기록하며, 수집한 데이터를 정의

[의료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출처: 헥슬란트(Hexlant Research)

블록체인에 기록된 의료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보다 신뢰도를 갖게 되며, 환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 제공사는 암호화폐를 통해 진료 데이터에 접근하여 환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보상받은 암호화폐를 지불하여 의료 서비스에 소비한다.

- 의료, 건강 콘텐츠 공유 :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및 치료 기록을 커뮤니티에 업로드한다. 또는 자신이 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리뷰를 플랫폼 유저들과 공유한다. 유저들의 공감을 이끈 콘텐츠일수록 높은 암호화폐 보상을 받으며 커뮤니티 영향력이 높아지고, 평가에 참여한 유저 또한 보상을 획득한다. 불치병 등의 접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공유하는 목적도 있으며 제3의 플레이어인 의료 서비스 제공사는 영향력 높은 유저를 섭외해 커머스 마케팅 등의 비즈니스를 전개한다.

② 의약품 공급망 관리

▶ 프로젝트 : Mediledger, BlockPharma 등

[의약품 공급망 관리]



출처: 헥슬란트(Hexlant Research)

- 통합 인프라 제공 :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한 뒤 의약품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정품 인증에 대한 프로세스를 기관 대신 처리한다. 제약사는 인프라 제공자에게 의약품 정품 인증을 허가받고 유통체인 참여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한다.

유통 체인은 인프라 제공사에 정품 인증 데이터를 제공하고, 유통 체인 참여자는 의약품 유통 데이터를 전송한다. 병원/약국, 소비자는 인프라 제공사를 통해 정품 인증을 확인한다.

(3) 에너지

- ▶ 키워드 : “(똑똑똑) 옆집에서 에너지 구매하러 왔습니다”
- ▶ CVP : 생산자 보상, 대체 에너지 제공, 가상 네트워크에서의 에너지 P2P 거래 및 저장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은 원자력, 화력 발전 등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점차 신재생 에너지나 집단 에너지 사업 등의 지역 기반 분산형 에너지로 변화하고 있다. 또 에너지 거래 방향과 주체가 자유 자재로 전환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

에너지 프로슈머⁸⁾)’가 등장했다.

에너지 산업에서 블록체인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적인 관계를 유도하며, 소규모 에너지 생산자 및 프로슈머의 시장 참여 기회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 및 소비자 간 직접 에너지 공급계약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계약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화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해 투명성, 보안성, 전송 용이성 및 최소한의 거래 비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로 고밀도 영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대체 에너지 제공, 분산 블록체인을 사용한 네트워크 자산 연결 위험 완화 등에 블록체인 기술 및 플랫폼이 사용된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고 확장될수록 시장에서 기존 거래 중개자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상당히 작은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산업 블록체인 적용]



출처: 헥슬란트(Hexlant Research)

에너지 산업에서도 역시 암호화폐는 결제수단(Means of exchange), 가치저장(Store of Value), 인프라 접근 권한(Permission)으로 활용된다.

8) 에너지 프로슈머(Energy Prosumer) :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로 아파트 단지, 대학빌딩,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등을 통해 소비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남은 전력을 판매하기도 하는 사람

① 재생 에너지 투자

▶ 프로젝트 : EnergiToken, WePower, OMEGAGrid, Greeneum, HydroCoin, Restart Energy, SolarCoin 등

- Green Action : 에너지 절약을 장려해 효율적인 전자제품 구매 또는 소비량 감축과 같은 에너지 절약을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암호화폐로 받는다. 이때 암호화폐는 설정된 에너지 발전량 단위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② 에너지 하위구조

: 블록체인을 사용해 에너지 인프라의 상태를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그리드를 제공하도록 한다.

▶ 프로젝트 : Energy Web Foundation, Electron, VIA, Drone Energy, Grid+, Pylon, LO3 Energy 등

- 커뮤니티 구축 : 물리적으로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이용해 특정 기준이나 위치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유한다. 최종사용자는 지역 내 재생 에너지 공급자를 지원하기 위해, 근처 옥상 태양광 소유자의 에너지 공유 토큰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때 토큰은 플랫폼 적격성 및 진입을 관리하는 용도와 에너지 거래에 사용하는 지불 토큰으로 나누어 활용할 수 있다.

③ 에너지 거래 및 마이크로그리드⁹⁾

: 자체 공유 마이크로그리드로 작동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효율성을

9)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일방향 시스템의 기존 전력시스템과 달리, 독립된 분산 전원을 중심으로 국소적인 전력공급 및 저장 시스템을 갖추어 개인이 전력을 생산하여 저장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형태

향상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초과 에너지의 지역 공유 및 교환을 위한 분산형 프로토콜을 구축한다.

- ▶ 프로젝트 : Grid Singularity, VLUX by Verv, Electrify Asia, Green Power Exchange, Power Ledger 등

[에너지 산업 블록체인 적용]



출처: 헥슬란트(Hexlant Research)

- P2P 에너지 거래 : 소비자가 최적가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사용량을 조정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가 차익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도록 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가진 가정에서 나오는 잉여 전력을 인근 아파트에 블록체인을 사용해 경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관은 토큰을 지불 수단으로, 공급업체나 서비스 · 제품 업체는 고객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거래 비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로 고밀도 영역에 거주하는 개인

이슈 리포트

에게 대체 에너지 제공, 분산 블록체인을 사용한 네트워크 자산 연결 위험 완화 등에 블록체인 기술 및 플랫폼이 사용된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고 확장될수록 시장에서 기존 거래 중개자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상당히 작은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마이크로그리드** :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마이크로그리드 운영자들은 에너지 수요 관리 목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가구 간 직접적인 P2P 전력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시범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기획 중이다.

[에너지 분야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 사례]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	내용
LO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 브루클린 지역의 50가구를 대상으로 XRG 암호화폐로 전력을 거래하도록 추진 - 태양광 패널을 가진 가정에서 나오는 잉여 전력을 인근 아파트에 블록체인을 사용해 경매 형식으로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olarCo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SolarCoin = 1 MWh - 마일리지와 같은 태양 에너지에 대한 보상 시스템으로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통화 - 태양 에너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SolarCoin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GRI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최저가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사용량을 조정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가 차익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도록 한다. P2P 플랫폼도 구상되고 있다. 	Ver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브 스마트 허브'를 통해 '반값 전기료' 실현 - 주택 단지 옥상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고 각각의 블록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구별로 필요한 만큼 거래
WeP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크라우드 펀딩 촉진 - 프로젝트 개발자는 WePower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에너지를 선불로 판매하여 자본을 조달한다 	Grid Singula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로 에너지 수요 관리 및 데이터 거래를 추진 중이다
Energitok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효율적인 전자제품 구매 또는 소비량 감축과 같은 에너지 절약 행위에 대한 보상 	Power Led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슈머들이 우버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방식으로 잉여에너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 POWR 토큰은 플랫폼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고, 플랫폼 적격성 및 진입을 관리 - Sparkz 토큰은 지역 내 에너지 거래에 사용

출처: 블록체인, 에너지 부문 기회와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원 보고서 18-01

(4) 물류·유통

- ▶ **키워드** : “제 택배가 왜 아직도 ‘옥천 Hub’에 있는 거죠?”

▶ CVP : 중개인 제외 다이렉트 거래 비용 절약, 데이터 기반 소비 결정

물류·유통 분야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서류, 행정 처리 비용과 처리 시간을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 가령 공급 체인의 주요 참여자인 송하인, 포워드, 세관원, 수하인 등은 블록체인으로 문서를 공유하면 모든 참가자는 현 상태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 이 정보는 물류·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투명하게 공유받을 수 있어 one-stop으로 투명한 정보 수집 및 비교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¹⁰⁾, 센서, 보안 식별, 데이터 관리 기술 등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류 산업에서는 IoT를 통해 공급망의 가시성을 높이고 물류 흐름 관리, 위치 추적 그리고 경로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연결된 기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플랫폼 토큰 설정을 통해 글로벌 유저 확보 및 결제 시스템 확장이 가능하며 나아가 플랫폼 내·외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마켓을 별도로 구축할 수 있다.

물류 시장의 실질적인 수요 창출은 최종 구매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류 시장은 화주, 물류 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주, 물류 사업자는 물동량, 운임비 등의 통제된 정보를 바탕으로 운송 비용과 노선의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블록체인 접목으로 최종 수취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폐쇄적인 시장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들도 등장하고 있지만, 이 비전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확률은 희박하다고 판단한다.

삼성SDS와 같은 기존 플레이어는 자체 Ledger 개발 후 컨소시엄을 시

10) IoT(Internet of Things) : 각종 사물에 대한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이슈 리포트

행하고 있다. 화주 및 물류업자는 해당 컨소시엄에 가입 후 인프라 비용 부담만으로 관련 파트너십과 블록체인 접목으로 인한 이점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퍼블릭 체인이 이 자리를 대체하기에 매우 높은 진입장벽이 있다. 기존 산업 환경과 플레이어를 고려했을 때 물류 산업은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성격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한다.

[물류/유통과 무역 분야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 사례]

물류/유통	
기업	내용
에버레저	- 다이아몬드나 와인 등 고부가가치 사치품들의 원산지 추적 및 인증에 IBM 블록체인을 활용
인텔	- 2017년 쏘투스 레이크(Sawtooth Lake)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해 해산물을 추적하는 실험을 진행
Provenance	- 2016년 5월부터 식품 공급망의 원산지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추적 가능한 서비스를 소매업자와 식당들에 제공
UPS	- 2017년 11월 블록체인 트럭운송 얼라이언스(BiTA) 합류를 공식 발표
월마트	- 2017년 12월 징동닷컴과 IBM, 칭화대, 전자상거래기술연구소와 함께 블록체인을 통해 식품 공급망 전반에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세이프티 얼라이언스 설립
무역	
기업	내용
SK C&C	- SK텔레콤의 사물인터넷 전용망을 활용해 컨테이너 화물 위치 추적과 관리 시스템을 개발
Barclays	- 2016년 9월부터 신용장을 블록체인 내에 기록해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 - Wave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 계약으로 업무 절차 간소화
머스크	- 2018년 1월 IBM과 합작법인 회사 설립 - 하이퍼레저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매년 수천만 대의 컨테이너 선박을 관리하고 추적할 계획
삼성SDS	- 해운물류와 무역 고도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솔루션 넥스레저(NexLedger)를 개발 - 2017년 넥스레저를 활용하여 '민관 합동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시범사업을 시행 - 2019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청, ABN·AMRO 은행과 공동 개발한 '딜리버(DELIVER)' 플랫폼 발표 (넥스레저,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더리움 등 이기종 블록체인 네트워크간 연결 사례) - 중국 천진공항과 인천공항의 항공화물 무역 정보를 교환 사업 진행중. 중국 평안보험의 IT전문기업 원커넥트社가 구축한 천진공항 항공화물 블록체인 플랫폼과 삼성SDS가 구축한 인천공항 관세청 통관 물류서비스의 연결은 향후 한·중 블록체인 기반 무역 네트워크 표준으로 이용될 계획

출처:삼성KPMG, 삼성SDS

유통 물류 산업에서도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Payment), 인프라 접근 권한(Permission)으로 활용된다.

① 컨테이너 실시간 위치 추적

: IoT 솔루션으로 실시간 컨테이너 위치 추적 및 블록체인으로 선사·

운영사·운송사 간 정보를 교환한다.

[IoT 솔루션 설치]



출처: 헥슬란트(Hexlant Research)

- IoT 센서를 부착해 중앙통제센터를 통해 모니터링하며 실시간 온도, 신선식품의 화물 추적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IoT 기술 덕분에 경로 최적화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 운송시간 단축, 온도조절 등이 가능해졌고 물품의 신선도 유지와 실시간 화물 추적을 통해 물류의 신뢰성을 높였다.

② 컨테이너 실시간 위치 물류 정보 관리, 화물이력 데이터 추적

- 화주와 물류 사업자는 물류 프로세스에 참가하기 위해 배송정보 데이터를 입력한다. 플랫폼에 제공하는 데이터 양과 비례해서 보상을 받는다. 물류 사업자는 물류 데이터 공유 및 수취인의 서비스 평가에 따라 추가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획득한 토큰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취인은 배송 서비스 리뷰를 남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류 정보 관리 및 데이터 플랫폼]



출처: 헥슬란트(Hexlant Research)

- 프리미엄 서비스 : 화주는 보상받은 토큰을 플랫폼에 지불함으로써 배송 발주검토 과정에 최적 배송 노선에 관한 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 물류 사업자는 배송 물량 우선, 배송비 우선 등의 옵션으로 우선 매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 콘텐츠

- ▶ 키워드 : “콘텐츠 산업의 무한한 확장성을 블록체인이 지원합니다”
- ▶ CVP : 콘텐츠 저작권 보호, 공정한 수익 배분, 유저 활동 보상, 질 높은 콘텐츠 업로드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투명성 결여’이다. 콘텐츠 수익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되지만,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익 분배 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아 창작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콘텐츠 제공사는 질 높은 콘텐츠 창작의 동기를 잃었고, 콘텐츠 소비자는 계속해서 낮은 질

의 콘텐츠를 경험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의료 산업과 더불어 블록체인의 투명성은 데이터 신뢰도를 확보해 주고, 정산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해줘 콘텐츠 산업에 혁신기술로 떠올랐다. 블록체인 플랫폼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급해줘 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유저가 콘텐츠 소비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면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제공자에게 보상을 주고, 평가를 한 유저 또한 보상을 획득함으로써 플랫폼 활동을 장려한다. 기존 콘텐츠 플랫폼은 플레이어의 역할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은 평가시스템을 통해 기존 플레이어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콘텐츠 분야 블록체인 활용]

분야	사례
동영상(스트리밍)	동영상 업로드/추천/공유/댓글 등의 플랫폼 활동에 대해 암호화폐 보상을 제공하여 플랫폼의 독단적인 검열을 방지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View 조작'을 방지
영화	암호화폐를 통해 영화 제작 투자/정산 등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며 최근에는 플랫폼에 독립 영화를 업로드/평가/번역 등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제고
음악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중개인 없이 가수와 소비자 간 직접 음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음원을 토큰화해 음원 토큰 보유자에게 스트리밍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발전
만화·스토리	플랫폼 내 작업을 저작권을 실시간 기록하며 암호화폐 보상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독자 협업을 제공, 최근에는 플레이어의 경계 없이 플랫폼 내 유저들이 창작/평가/번역/계약 등의 비즈니스를 지원
이미지	사진 작가가 판매 가능한 이미지를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직접 소비자와 연결, 이미지를 업로드 할 시 블록체인상 저작권이 기록되어 지적 재산권 침해 방지
광고	플랫폼 내 광고주, 퍼블리셔 등의 이해관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 소비자에게는 광고 시청에 대한 암호화폐 보상을 제공하면서 고객 로열티 확보
IP	IP를 토큰화하여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중개인 없이 IP 거래/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며 IP 사용 및 거래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지적 재산권 침해 방지

출처: 헥슬란트(Hexlant Research)

콘텐츠 산업에서도 암호화폐는 결제수단(Means of Exchange), 투표(Voting), 인프라 접근권한(Permission), 가치저장(Store of Value)의

역할로 사용된다.

① 콘텐츠 판매 및 공유

▶ 프로젝트 : Steem, Dtube, Content Protocol, TaTaTu, Moviebloc 등



- 콘텐츠 판매 및 평가 : 콘텐츠 제공자는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판매한다. 기존 산업보다 낮은 플랫폼 비용으로 수익을 분배하며, 블록체인 데이터 투명성 및 무결성을 통해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진다. 유저는 소비한 콘텐츠에 대해 평가를 남기고 이에 대한 보상을 획득한다. 콘텐츠 제공자는 유저 평판에 따라 추가보상이 주어지거나 불이익을 받는다.
- 유저 데이터 비즈니스 : 데이터 수요자는 콘텐츠 소비, 활동, 평판 등의 유저 활동으로 쌓이는 데이터를 암호화폐와 교환할 수 있다. 유저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데이터 제공 동의 여부를 받아 수집 및 가공되며, 판매수익의 일부를 데이터 제공자에게 분배한다.
- 광고 출판 : 마케터는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 내 존재하는 유

저 데이터를 구매하여 타깃 마케팅을 실현한다. 무분별한 광고 제공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광고 시청에 암호화폐를 결합한 비즈니스를 전개한다. 콘텐츠 제공사와 협업하여 프로모션 비용을 조달받아 유저가 광고를 시청했을 시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제공하여 높은 광고 효과를 기록한다.

② 지적재산권 비즈니스

▶ 프로젝트 : Pibble, Storichain, Piction Network 등



- 2차 창작물 : 콘텐츠 제공자가 플랫폼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플랫폼은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제공자는 이를 상품 제작자에게 허가하여 콘텐츠 IP와 관련된 상품 제작을 맡긴다.

상품 제작자는 플랫폼 내 입점한 커머스 사업자에게 상품을 전달하고, 커머스는 유저에게 2차 창작물을 판매한다. 해당 과정은 블록체인에 의해 이해관계자 간 투명하게 공개되며,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해당 비즈니스는 온체인 상에서는 가능한 비즈니스지만, 오프체인 상에서는 라이선스 사용에 대해서 정확한 추적이 힘든 상황이다.

- 저작권 투자 : 저작권의 활용처가 많아지고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저작권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저작권 투자는 플랫폼 내 등록된 저작권 라이선스에 대해 암호화폐로 투자를 하고 투자금액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2차 창작물에 대한 수익을 분배받는다. 해당 과정은 ICO(Initial Coin Offering)와 매우 유사하며 저작권 라이선스를 통해 자금조달을 진행할 경우 플랫폼에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여 투자자 보호 단계를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6) 게임(VR, Game)

- ▶ 키워드 : “블록체인 킬러 DApp은 게임이 차지할 거야”
- ▶ CVP : 낮은 입점 수수료, 신뢰 있는 게임 자산거래, 데이터 권한 제공

게임 산업은 독점적인 유통 영향력을 갖춘 플랫폼과 콘텐츠의 힘에 이끌려 성장해왔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수수료 구조의 불공정성과 게임 제작비용 부담은 늘었고 게임 업데이트 방향성에 대한 독립성 또한 보장받지 못했다. 한편, 게임 자산거래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인프라는 낙후되어 유저(게이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게임 산업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다른 산업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유저들이 이미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 같이 암호화폐와 비슷한 특성을 이미 접하였기 때문이다. 게임제작사들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게임 산업에 적용하여 유저 경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의 보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유저에게는 게임 플레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보상 제도를 통한 유저 유입 요인 제공은 기존 대형 플랫폼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 플

랫폼은 기존보다 낮은 입점 수수료를 제시하여 게임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그외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성된 게임 자산거래소를 통해 유저에게 신뢰 있는 게임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구축으로 게임 업데이트에 대한 의사소통 창구를 제공해 준다. 최근에는 VR 트렌드에 맞춰 VR을 적용하려는 프로젝트들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게임 산업에서도 암호화폐는 결제수단(Means of Exchange), 인프라 접근 권한(Permission), 가치저장(store of Value)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① 게임 서비스 플랫폼

▶ 프로젝트 : DMarket, Game X Coin, Bryllite Coin, Playcoin, MixMarvel 등

[게임 서비스 플랫폼]



출처: 헥슬란트(Hexlant Research)

- 게임 서비스 제공 : 게임제작사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에 기존 산업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게임을 입점한다. 지불 형태는 자신이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자원을 예측하고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는 것

이슈 리포트

- 게임 자산 거래 : 플랫폼 내 게임 자산 거래에 대한 컨트랙트 기능을 제공하여 중개인 없는 P2P 게임 자산거래를 제공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프로세스 형태로 구성된 경우가 많으며, 하나의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플랫폼 내 모든 게임자산을 연결하여 플레이 확장성을 제공한다. 이때 플랫폼은 스마트 컨트랙트 비용 또는 거래마다 약간의 수수료를 취득한다.
- 커뮤니티 : 탈중앙화의 성격에 맞게 게임 업데이트 방향 및 개발 상황을 커뮤니티를 통해 유저들과 교환한다. 비중이 큰 업데이트 경우 투표를 통해 유저가 직접 게임 제작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유저는 플레이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평판을 기반으로 게임제작사/플랫폼이 제공하는 암호화폐 보상을 획득한다.
- 유저 데이터 & 광고 : 콘텐츠 산업과 동일

① 게임 서비스 플랫폼

▶ 프로젝트 : EnjinCoin, BORA Network, WAX 등

[블록체인 게임 개발 인프라 제공]



출처: 헥슬란트(Hexlant Research)

- 개발 인프라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블록체인 게임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게임제작사는 플랫폼에 암호화폐를 스테이킹 및 지불함으로써 인프라 이용에 대해서 결제한다. 해당 비용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검증자/블록 생성자에게 분배한다.
- NFT¹¹⁾ 발행/거래 : 누구나 손쉽게 NFT 형태의 자산을 발행하도록 Tool을 제공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게임 아이템 등 대체 할 수 없는 자산을 NFT로 발행하여 타 유저와 거래하며, 인프라 제공자는 NFT 발행 비용과 거래 수수료를 취득한다.

III. 결론

블록체인은 단순 지불 거래 및 검증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이 가능한 기술로 성장하고 있다. 산업별 블록체인 적용 모델들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토큰 이코노미는 기업의 생태계 형성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공급자와 소비자 간 네트워크(network effect)가 커지면서 기업 간 경쟁은 기업 생태계 간의 경쟁으로 발전해 왔다.

토큰 이코노미의 보상 메커니즘은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 구간을 거쳐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임계 범위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고객을 유인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

11)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뜻으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하는 것. 대표적인 사례로 ‘크립토키타’가 있다.

법이 될 수 있다. 초기 서비스 이용 가치가 낮더라도 재정적 효용성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 이탈을 방지하고 생태계 형성에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블록체인 시장은 선점하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려울지 모른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회 선점 ▲사업성 보다는 성장잠재력에 따라 트래픽을 빨리 대량으로 모으는 것이 주요 성공 요인이었다. 한 프로젝트가 자금모집에 성공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비슷한 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개성 있는 프로젝트를 찾기가 쉽지 않아졌다.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도 힘들고, 같은 아이디어라도 비즈니스를 위해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펼치는가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제시한 로드맵 실행, 파트너십 강화 등으로 시장 선도력을 키워야 한다. 시장이 성장할수록 선발주자의 이점은 감소하고 점차 기업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경쟁우위인 품질, 서비스, 고객서비스와 같은 전통적인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다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된, 즉 프로세스나 가치사슬 상의 활동을 좀 더 세분하여 이를 재통합 및 재조합하며 가치를 창출해 왔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대하는 혁신이란 전통 산업 모델의 완전한 대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핀테크 등 4차 산업과 기존 산업들의 협업으로 모인 작은 변화들로 모두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OPINION

■ 21세기엔 지역화폐도 금융 경쟁력이 필요하다

-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한국블록체인협회

21세기엔 지역화폐도 금융 경쟁력이 필요하다

글_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하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는가에 전 세계 금융권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발표가 빈번히 나오고 있다.

일명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순환경제 구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 작년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66곳에서 3,714억 원 규모로 발행했던 지역화폐를 금년에는 전국 120개 지자체에서 2조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역화폐 발행을 권장하기 이전에 먼저 지역화폐가 정말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순환 경제구축에 효과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다.

1. 현행 지역화폐의 문제점

지역화폐의 특징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화폐는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위변조가 안 되도록 조폐공사에서 홀로그램과 위변조 방지 잉크를 사용해서 발행한다. 또 발행된 상품권은 분실과 유용 없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금융적 행정적 책임이 따른다. 한 마디로 발행과 관리 비용이 적지 않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발행 규모가 50억 원일 경우 약 10% 정도의 금액

안산 지류형 지역화폐 '다운'



출처: 경기도

을 발행·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둘째, 지역화폐는 온라인구매나 대형마트에서의 사용이 안 되고 재래 시장과 지역 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상품권으로서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심하다. 요즘같이 전자결제가 일반화되는 시대에 마트와 온라인구매가 안 되는 상품권을 누가 사려 하겠는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역화폐 구매를 꺼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다.

셋째,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발행되는 지역화폐 대부분이 해당 지역의 공무원 포상금이나 청년수당으로만 사용되며 발행의 원래 취지였던 신규소비 생성을 위한 외지인들의 구매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러다 보니 해당 지역 사람들이 현금과 카드로 결제하던 금액이 지역화폐로 대체되었을 뿐, 신규소비의 증대 없이 발행비용 상승으로 결제에 수반되는 비용만 올라간 셈이 됐다.

넷째, 높은 발행비용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는 지역화폐가 들어오면 농협에 가서 곧바로 현금으로 교환한다. 가맹점이라 할지라도 외부에

서 구입해야할 물품이 작지 않은데 지역화폐는 오로지 그 지자체 내에서만 유통할 수 있어서 현지인에게도 사용이 불편하다. 이처럼 지역화폐의 좁은 화폐 공간은 지역화폐의 소비를 일회성으로 그치게 함으로써 최초 사용을 마지막 사용으로 만들고 만다.

다섯째, 이렇다 보니 지역화폐의 발행처인 지자체는 지역화폐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매가의 10%를 보조해서 만 원짜리 상품권을 9천 원에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이런 지자체의 보조금은 지역 경기 활성화 대신에 온라인에서의 상품권깡에 이용되면서 지역 밖으로 손쉽게 유출된다. 안 그래도 부족한 지자체 예산이 이렇게 소리 소문도 없이 새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는 행정안전부 발표는 중앙정부가 지역화폐의 투입비용 대비 정책 효과를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현재의 지역화폐 정책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일방적인 발행만 있을 뿐이다.

2. 지역화폐도 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쓰게 한다고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더구나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를 목전에 두고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지불결제서비스가 등장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보관과 사용이 불편한 지류 상품권 형태로 제한된 권역 내에서 오프라인 구매만을 허용하는 지역화폐가 어떻게 금융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프랑스의 술비올레트



독일의 캄가우어



성남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노원(NW)

출처: 광주전남연구원

지역화폐의 기능과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불 결제서비스로서 현금이나 카드결제가 갖지 못한 지역화폐만의 장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폐의 형태를 지류에서 디지털 형태로 바꿔 웹(온라인)과 앱(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야 한다.

디지털 형태의 지역화폐는 휴대와 이용이 간편해서 분실의 우려가 적고 결제의 편의성이 보장된다. 추가 구매 시 모바일 지갑에 바로 적립할 수 있고, 잔액 확인과 할인 적용 등의 각종 부가서비스 역시 한꺼번에 적용돼 이용이 상당히 쉽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면 발행비용도 지류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지며, 실시간으로 전체 지역화폐의 사용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하다. 이는 지역화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화폐의 정책효과분석과 문제점 파악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용 규모의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발행 규모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인 만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세 및 범칙금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이용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역내 통합 결제 화폐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이 경우에만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순환 경제 구축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지방 행정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각 지자체는 행정서비스 경쟁을 가격 측면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블록체인 인증서비스와 연계한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훨씬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화폐 공간의 확대이다. 현행 지역화폐의 가장 큰 불편함은 유통권역이 좁다는 점이다. 권역 안과 밖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화폐 공간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것이 지역화폐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단 해당 권역 지역화폐를 이용할 경우 상품권 구매 시 제공했던 10% 할인을 결제 단계에서 제공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강원도 지역화폐를 강원도 내에서 이용할 경우 1만 원짜리 상품을 9천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해주는 것이다. 해당 권역을 벗어날 경우에는 할인 없이 정액 그대로 결제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모든 지역화폐를 등가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지역화폐 통합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할인을 적용을 원하는 이용자라면 이 플랫폼에서 방문지역의 지역화폐를 구매하거나 교환할 것이다.

미래 디지털 금융에서는 화폐가 교환가치와 교환방식을 함께 제공할 것으로 전망한다. 페이먼트 서비스를 장착한 돈, 그게 미래의 화폐라면 지역화폐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지불결제의 편의성이 제공되어야 지역화폐도 금융서비스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최화인

-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 캠퍼스 학장
-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규제자문위원, 자문위원
-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2019. 6월]

한국블록체인협회

■ 카카오 ‘블록체인 앱 마켓’ 구축, 카톡에 암호화폐 지갑 탑재

- 3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블록체인 앱 스토어 구축에 나선다고 밝힘
- 블록체인 앱 스토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앱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처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디앱·DApp)들을 그라운드X 디앱 스토어에서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며, 6월 27일 메인 넷 ‘클레이튼’ 출시와 함께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 ‘볼트(가칭)’를 탑재하기로 함

■ 우본, 블록체인 기반 ‘우체국페이’ 출시 예정

- 6일 뉴스1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NHN·코인플러그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 우체국 페이를 개발한다고 밝힘
-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 디지털 전환 민간주도형 사업’ 중 하나로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공공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우본은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서비스를 개발한 코인플러그의 블록체인 기술과 NHN의 클라우드기술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해 우본 관계자는 “나주 혁신도시 내부에서 테스트해 가능성을 타진하고 향후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중기부가 주도하는 제로페이와의 연동도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함

■ 한국 도미노피자,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최초 암호화폐 결제 도입

- 7일 한국 도미노피자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0일부터 (주)페이코인(PayCoin)과 파트너십을 체결, 페이코인(PCI) 결제서비스를 오픈한다”고 공지함

- 대형 프랜차이즈 중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 업체는 도미노피자가 국내 최초이며, 도미노피자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에서 페이코인(PCI)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임

■ 재외공관 공증,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검증 시행

- 외교부와 금융결제원은 ‘정부 혁신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7일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재외공관 공증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고 밝힘
- 서비스는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되며, 국내 14개 은행이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접속해 재외국민이 공증받은 금융위임장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검증, 재외국민들의 국내 금융업무가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 한국블록체인협회 후임 회장, 오갑수 글로벌 금융학회장 내정

- 10일 서울경제 블록체인 전문미디어 디센터(Decenter) 보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진대제 초대협회장의 후임으로 오갑수 글로벌 금융학회장을 내정하였다고 밝힘
- 후임 오갑수 회장은 참여정부 때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을 지낸 후 SC제일은행 부회장, KB국민은행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글로벌 금융학회장으로 재임 중임
-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함
- 진대제 협회장은 2018년 1월 취임 이후 △협회 기반구축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ICO·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 대정부 제안 등 암호화폐 시장 안정화 및 사회적 지평 확장을 위한 사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향후 서울시 혁신성장위원장 및 시정고문으로서 미세먼지 등 도시문제 해결에 활동을 집중할 계획임

■ KB 국민은행,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톰릭스랩과 업무협약

-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6월 10일 디지털자산 보호 기술을 가진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톰릭스랩’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히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자산 보호 기술과 스마트계약 적용 방안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디지털 자산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함
 - 아톰릭스랩의 혁신기술과 KB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인프라 및 정보보호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임
 - KB국민은행은 KB의 핵심기술을 ‘ABCDE’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전사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임
- ※ ABCDE :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Blockchain), 클라우드(Cloud), 데이터(Data), 생태계(Ecosystem)의 머리글자

■ 현대차그룹, 블록체인 기반 ‘Paperless’ 본격 시동

- 1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IT서비스기업 현대오토에버가 지난 4월부터 내부용 보안서약서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을 14개 계열사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현대오토에버가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의 엔진을 활용해 구축한 것으로 각 계열사에서 모든 임직원이 입사·승진 시 작성하는 보안서약서를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며, 기존 종이 문서를 블록체인 상의 전자문서로 옮긴 첫 사례로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전자문서(paperless)’ 전략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일반적인 전자문서솔루션은 공인인증기관 서버와 연동하거나 솔루션 제공업체의 사설 증명솔루션을 사용해 보안과 비용 측면에서 단점이 있었으나, 현대오트오버가 구축한 솔루션은 내부 블록체인 네트워크만으로 모든 보안서약서의 발급과 검증이 가능함

■ 신한금투 - 카사코리아, 블록체인 기반 증권 유통플랫폼 제휴

-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가 카사코리아와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발행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 기술을 통해 투자자들이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며, 신한금융투자는 이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계좌개설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자금의 이동 및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사 최초로 적용해 전자증서의 매매를 기록하는 분산원장을 카사코리아와 공동 운영할 예정임

■ 서울시 ‘4차 산업혁명펀드’ 500억 조성, 블록체인 투자 포함

-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4차 산업혁명 펀드(운용사 캡스톤파트너스주)’를 500억원(존속기간 8년, 투자 4년) 규모로 조성 완료했다고 밝힘
- 500억 원 중 80% 이상이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에 투자된다. 260억 원 이상은 5G,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에 중점 투자되며, 100억 원 이상은 서울 소재 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됨
- 시는 “서울의 창업기업별 초기 투자금이 10만 7000달러로 글로벌

도시 평균 투자금의 3분의 1 수준(28만4000달러)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마중물에 해당하는 펀드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유망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혁신벤처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힘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5곳, 면책 범위 불공정약관 시정

-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등 5개 업체가 2018년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일부 불공정약관을 최근 수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들의 약관은 사이버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발생한 거래상 문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되었으며, 앞서 이들 약관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돼 있었는데,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면제해 준다는 지적을 받았음
- 공정위는 업체들이 늦게나마 약관을 시정 권고대로 수정함에 따라 이들 업체에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의미의 시정명령인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함

■ 군산시, 블록체인 행정 구축 착수

- 17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가 블록체인 행정 시스템 구축에 나섬
- 서울시, 제주도, 부산시에 이어 군산시까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시티 대열에 가세하였고, 최근 블록체인 기반 대시민 행정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입찰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함
- 이번 사업은 7,930만원 규모로, 계약 체결 후 4개월간 추진되며, 선정 업체는 허가된 사용자에게만 접근권을 부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게 됨

■ 삼성 SDS, 블록체인 기반 보험금 청구서비스 8월 출시

- 18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삼성SDS가 건강 관리와 금융을 결합한 블록체인 기반의 보험금 청구서비스를 2019년 8월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힘
- 삼성병원, 이대병원, 한림대병원 등 10개 이상의 의료기관과 4C 게이트와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등이 삼성SDS 넥스레저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금 청구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삼성SDS는 이 같은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비용을 70% 가까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내외 110개 기업 적용 사례와 국내외 특허 51건을 바탕으로 융복합(Convergence), 연결(Connectivity), 클라우드(Cloud)의 ‘블록체인 3C’ 전략을 공개함

■ 금융위,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연장한다

- 18일 팩스넷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을 연장할 계획임
- 가이드라인은 관련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이 통과하면 7월 9일 실효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연장기로 함
- 앞서 2018년 1월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의심거래 보고 의무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거래소로 하여금 집금계좌(별집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근거 없이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간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자금세탁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짐

■ 검찰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 18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가상화폐 관련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 임원 홍모씨에게 징역 7년, 최고운영책임자 조모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고 밝힘
- 김 대표와 홍 씨는 2017년 1월경 고객 투자금 450억 원의 예탁금을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38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으며, 홍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바 있음

■ LG CNS,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 화폐’ 8월 서비스

- 19일 팩스넷뉴스에 따르면, LG CNS가 KB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과 손잡고 2019년 8월 마곡 커뮤니티 화폐 플랫폼을 오픈한다고 밝힘
- 마곡 커뮤니티 화폐 플랫폼은 실시간 충전·송금·결제·출금이 가능한 서비스로, LG CNS가 자체 개발한 기업용 블록체인인 모나체인(Monachain)이 기반임
- 커뮤니티 화폐는 마곡 LG 사이언스파크 LG CNS 본사를 중심으로 소비자(임직원)와 가맹점 간 이뤄지는 결제서비스로 ▲전자화폐 지불 결제 ▲가맹점 서비스 ▲모바일 ID 등의 기능을 구현함
- 사용자는 현금으로 충전한 토큰을 사용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 대신 결제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커뮤니티 화폐를 실시간으로 충전, 임직원끼리의 송금 가능, 복지 포인트로 전환 가능, 회사 출입 시 ID카드로 사용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통계청, 통계 분야 블록체인 적용 검토한다

- 19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통계청이 2019년 1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는 ‘블록체인 기술 통계 활용 기초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통계 작성 단계별 이슈와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 통계 시스템에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통계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면 인구주택 총조사 등 집계·분석에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대형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여서 관련 정책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 또한 “각 분야 자료를 수집하는 부처·기관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면 집계 과정 자체가 불필요하므로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며 “대국민 차원에서 통계 왜곡·오용 문제의 원천 차단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함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00개 돌파...난립 지적

-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205곳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개설 예정인 28곳과 운영을 중단한 7곳 등을 제외하고 실제 거래가 되는 거래소는 151곳임
-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거래소의 이른바 ‘벌집계좌’ 운영을 금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거래소 난립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가상화폐 시세 급락으로 거래액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기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은 제도 미비 탓이 적지 않다”고 지적함

■ NH투자증권·디렉셔널 블록체인 P2P 주식대차 플랫폼 MOU

-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핀테크 전문기업 디렉셔널과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 간(P2P) 주식 대차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힘
- NH투자증권은 블록체인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대여·차입할 수 있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고객이 디렉셔널 플랫폼으로 대차거래를 하면 NH투자증권이 계좌 관리와 공매도 서비스, 리스크 관리 등을 지원한다고 밝힘

■ SSG페이, 하나은행 블록체인 기반 결제서비스 합류

- 21일 신세계 SSG페이가 KEB하나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국제 결제 플랫폼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 (GLN)에 참여한다고 밝힘
- 하나금융 GLN은 다국가 사업자를 플랫폼 네트워크로 연결해 온·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SSG페이 이용자는 더 많은 국가에서 GLN 플랫폼 가입 사업자와 온·오프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됨

■ 드림시큐리티, 삼성 SDS 블록체인 플랫폼 첫 공급 협력사 됐다

- 21일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정보보안 전문기업 드림시큐리티(대표 범진규)가 삼성SDS와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Nexleger)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드림시큐리티는 넥스레저 첫 공급 협력사가 되었다고 보도함
- 드림시큐리티는 2018년 금융권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체계 ‘뱅크사인’ 구축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생활밀착형 블록체인 플랫폼

품 구축 사업에 참여 중임

- 드림시큐리티 측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5G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의 기기인증 시스템과 안전한 전자지갑 서비스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응용 보안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라며 “앞선 경쟁력을 갖추고 정보보안 대표기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힘

■ 안랩 “안드로이드 암호화폐 악성코드 공격 확산”

- 26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랩 시큐리티대응센터(ASEC)가 ‘암호화폐 관련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유형별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행, “지난해 주춤하던 암호화폐 악성코드가 올해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함
- 암호화폐 관련 안드로이드 악성코드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최근에는 크립토재킹(Crypto jacking), 페이크월렛(Fake wallet), 클리퍼(Clipper) 등 3가지 유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 크립토재킹 : 공격자가 모바일 기기에 악성코드를 몰래 심어 암호화폐 채굴, 이를 가로채는 것을 의미함
 페이크월렛 : 암호화폐 지갑 앱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로 사용자에게 프라이빗 키 입력을 유도한 뒤 이를 공격자에게 전송하는 방식
 클리퍼 : 클립보드에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감지되면 해당 정보를 공격자에게 전송하는 악성코드

■ 서초구 블록체인 프로젝트, 스위스 크립토밸리서 ‘서초코인’ 소개

- 26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5일 블록체인의 성지로 알려진 스위스 추크시에서 열린 ‘크립토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해 서초구의 새로운 블록체인 사업을 발표, 협력확대를 제안함
- 조 구청장은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리는 웰컴 연설자로 나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설한 ‘블록체인 아카데미’와 ‘서초코인’ 프로젝트를 소개함

- 이 중 ‘서초코인’ 프로젝트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나 치매 예방 교육수료 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코인을 지급해 복지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금융위, 상반기 37건 혁신금융 지정...블록체인 5건

- 26일 국내 미디어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고 밝히고 블록체인 활용은 5건으로 알려짐
- 주요 사례로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 업체 파운트와 블록체인 전문 기업 아이콘 루프가 진행 중인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계좌개설 실명확인 도입 등이 꼽힘
- 이와 관련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금까지 총 37건 중에서 금융 샌드박스 서비스를 지정했고 이 중에서 5건이 블록체인 활용에 관련된 것이며,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다”고 말함
- 미디어는 “글로벌 IT기업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발행을 선언하며 금융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권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이 빨라지는 추세”라고 전함

■ 470억원 빼돌린 10위권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 구속 기소

- 27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고객자산 470억 원을 횡령한 국내 10위권 암호화폐 거래소 이아비트 대표 이모씨(52)가 재판에 넘겨짐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고객예탁금 329억여 원과 비트코인 141억여 원을 빼돌린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함

-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고객예탁금을 개인 암호화폐 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법인 고객으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해왔으며, 2016년부터 유명 거래소인 ‘빗썸’ 이나 ‘코빗’ 의 시세 창을 자신의 것처럼 홈페이지에 띄워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고, ‘수수료 제로’ 정책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회원을 유치함
- 이와 관련 검찰은 “이야비트의 기만적 운영에도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함

금융위 핀테크 규제혁신 150건 수용, 가상화폐 건의는 모두 거부

- 27일 비즈니스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규제혁신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지만, 가상화폐 관련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188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150건을 수용함
- 가상화폐 공개(ICO)와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 증권사에 가상화폐 취급 업소 실명확인서비스 허용 등 건의사항은 모두 거부하였으며,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증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함

해외 정책 및 산업동향

[2019. 6월]

- 미국
- 영국
- 스위스
- 중국
- 일본
- 기타

한국블록체인협회

미 국

■ 외신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미국 CFTC와 논의”

- 3일 파이낸셜타임즈(FT)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현재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두고 미국 선물상품거래위원회(CFTC)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미디어는 CFTC의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을 인용, “CFTC와 페이스북이 디지털화폐 발행 관련 해당 코인이 CFTC 규제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초기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 월마트, 블록체인 프로젝트 메디 레저 합류

- 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가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제약 분야 블록체인 프로젝트 메디레저(MediLedger)에 합류했다고 전함
- 메디레저는약품 유통 전 과정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 누가, 언제 제품과 접촉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로, 환불(Chargeback) 프로세스도 자동으로 처리해주며, 메이저 제약사인 화이자(Pfizer), 매케슨(McKesson), 아메리소스 버진(AmerisourceBergen), 카디널 헬스(Cardinal Health) 등은 이미 메디레저 멤버로 합류함
- 월마트 연례 리포트에 따르면 회계연도 1월 31일 기준 약국,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 포함된 ‘Health and wellness’ 분야 미국 내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인 350억 달러에 달함

■ 前 SEC 보안 전문가 “SEC, IEO 단속 본격화 전망”

- 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CCN에 따르면, 최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속 사이버보안 전문가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

가 “미국 SEC가 곧 IEO를 단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와 관련해 그는 “IEO는 거래소라는 매개를 통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해 투기를 조장하는 또 다른 투자 사기의 일종”이라며 “SEC는 최근 IEO 열풍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칼을 빼 들 것”이라고 부연함

- 또한 그는 “IEO는 벼락부자를 꿈꾸는 투자자들에게 IPO를 연상시켜 노골적으로 그들의 자금을 탈취하려 시도함. ICO와 마찬가지로 IEO는 IPO와 공통분모가 전혀 없음. 사실상 규제 사각지에 놓인 IEO 및 ICO는 사기,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해킹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이 같은 투자 사기는 피해야 한다”고 덧붙임

■ 미국 CFTC 의장 “페이스북 리브라, 기발한 설계”

- 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토글로브(Crypto Globe)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미국 선물상품거래위원회(CFTC) 의장이 최근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리브라의 전반적인 설계는 매우 기발(Very Clever)하다”고 평가함
- 그러면서도 그는 “페이스북이 적합한 수준의 KYC 및 AML 장치를 마련했는지는 곧 직면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관련 문제임. 페이스북 리브라를 CFTC가 직접 규제하는 특정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충분한 달러 자산이 뒷받침된다면 해당 토큰을 파생상품이라고 정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부연함

■ 미국 SEC, ICO 프로젝트 ‘킵’ 기소...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 5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 프로젝트 킵(Kik)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함
- SEC의 관련 보고서를 통해 킵이 1933년 증권법 제5조를 위반했다고 공시함. 킵은 미등록 증권 판매를 통해 1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투자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제시했다고 보도함

- 고소와 관련한 일부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해당 업체는 설립 이래 실질적 수익이 없었고, 기업 인수 혹은 합병 등에 관심을 표한 투자사가 없었다.
 2. 키큰 암호화폐 KIN 프라이빗 세일 투자자에 편중된 정보를 제공했다.
 3. 키큰의 자체 발행 토큰인 KIN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투자자 대상 특별 이모티콘 서비스를 제공했다.

■ 미 하원, 암호화폐 징세 법안지지 촉구

- 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 테드 버드(Ted Budd)가 최근 ‘암호화폐 과세 공정성 법안’과 ‘2018년 암호화폐 세법’ 등 2가지 법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함
- 이와 관련해 그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보안은 한 나라의 보안 문제로 직결된다”며 “신흥산업 발전에 위협으로 다가오는 불공정한 과세 방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함

■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100명 이상 투입

- 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CNBC보도를 인용,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리브라)에 100명 이상의 직원이 투입됐다고 전하였으며,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관련 40개 이상의 채용 공고를 올려놓은 상태여서 앞으로 관련 직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페이스북 블록체인 총책임자는페이팔 사장, 코인베이스 이사 출신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이며, 오픈소스 총괄(head of open source)은 페이스북 개발자 에릭 나카가와(Eric Nakagawa)로 알려짐

■ 미국 대형 마트 체인,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솔루션 구축

- 10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대형 마트 체인 타겟(Target)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함
- 미디어에 따르면 타겟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컨센소스(Consensource)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기반의 공급상 인증 솔루션을 공개하고, 하이퍼렛저 그리드 프로젝트와 호환하며, 타겟의 대표적인 공급상인 카길(Cargill), 인텔 등이 포함되었다고 전함

■ CCN “구글 코어 업데이트, 암호화폐 미디어 노출량 급감...운영중단 불가피”

- 1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CCN의 창업자인 요나스 보쉬그레비크(Jonas Borchgrevink)가 “지난 3일(현지시간) 구글의 코어 업데이트 진행 후 CCN의 구글 검색량이 하룻밤 사이 71% 하락했다”며 “이대로라면 수익성 악화로 CCN은 폐쇄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전함
- 이와 관련해 그는 검색엔진 최적화(SEO) 서비스 제공업체 시스트릭스닷컴의 데이터를 인용 “암호화폐 미디어 업계 1위를 다투는 코인데스크와 코인텔레그래프의 구글 검색량 및 노출량도 각각 업데이트 전보다 34.6%, 21.1% 감소했다”고 덧붙임

■ VISA, 블록체인 기반 신원확인 시스템 정식 출시

-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카드 대표 주자 비자(VISA)가 블록체인 기반 신원확인 시스템 ‘VISA B2B 커넥트’를 정식으로 출시하고 30개 글로벌 기업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
- ※ VISA B2B 커넥트 : 금융업체가 국경간 지급결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플랫폼 상거래에 사용될 개인 암호식별자를 제공하고 금융거래와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토큰화
- 이와 관련해 비자의 비즈니스 솔루션 글로벌 책임자 케빈 팔렌(Kev

in Phalen)은 “해당 네트워크는 완벽히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시스템에 비해 더 많은 지불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 미국 에너지 기업, ETH 블록체인 기반 석유 자산 토큰화

- 12일 글로브뉴스와이어(globenewswire)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 주 소재 석유 및 에너지 기업 ‘Ziyan Inc’ 가 업계 최초로 석유 자산을 토큰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ERC-20 표준을 활용해 석유 생산 로열티 소유권을 토큰화하는 등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영업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Ziyan 측의 설명임

■ 백트, 7월 22일 사용자 테스트 시작

- 1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BTC 선물 거래소 백트(Bakkt)가 오는 7월 22일 사용자 테스트(user testing)를 시작하고, 이번 테스트에서 백트의 BTC 선물은 ICE Futures U.S.에 상장되며, ICE Clear U.S.에서 청산될 예정이라고 전함
- 지난 5월 백트는 7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 및 자산 위탁 서비스의 사용자 수용 테스트 운영(User acceptance testing)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정식 서비스의 런칭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음

■ 포브스, “미국 경제 ↓ 암호화폐 산업 ↑”

- 13일 포브스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미래에 대한 5가지 예측’ 을 발표함

1. 미국 경제의 상승세는 곧 사그라들 것이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이다.
 2. 게임 산업이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응용 사례가 될 것이다.
 3. 미국은 여전히 ‘관망’ 하는 규제 방식을 택할 것이다.
 4.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을 것이다.
 5. 업계는 블록체인 기반의 ‘킬러 앱(killer app, 출시와 동시에 시장을 재편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해당 예측 중 일부는 올해 안으로 실현될 것이며, 그 외의 것들 또한 수년 내로 실현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혁명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임

■ WSJ “페이스북 코인, 비자·마스터카드 등과 파트너십 체결”

- 14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추진 중인 페이스북이 이미 10여 곳의 기업과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에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페이팔, 우버 등도 포함되었다고 밝힘
- 해당 업체들은 향후 발행될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와 서비스 측면에서 연계될 전망이며, 미디어는 업계 전문가를 인용해 “이 같은 금융 기업들과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약 1,000만 달러씩 투자해 공동으로 페이스북 암호화폐를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봄

■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백서 발표

- 18일 페이스북이 자체 발행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Libra)의 백서를 발표함
- 백서 전문보기 : <https://libra.org/en-US/white-paper/>

■ 페이스북, 암호화폐 지갑 ‘칼리브라’ 2020년 출시

- 18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리브라(Libra) 백서를 발표한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리브라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지갑 칼리브라(Calibra)도 공개함
- 칼리브라는 아직 개발 단계이며 내년 출시될 예정이며,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되며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뿐만 아니라 다양한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페이스북은 “칼리브라는 암호화폐 거래소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후에 일부 거래소와 통합될 수도 있다”고 설명함. 칼리브라는 페이스북 자회사로, 페이스북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힘

■ 페이스북 부사장 “범죄 예방 위해 리브라 데이터 공유”

- 1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 페이스북 부사장이 인터뷰를 통해 “리브라는 비트코인과의 거리를 두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리브라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규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미디어는 “페이스북은 초기에 리브라의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얻을 계획이 없었으며,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할 것이지만, 페이스북은 이러한 규칙들을 바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함

■ 페이스북 암호화폐 지갑, 정부 발행 신분증 통한 가입만 허용

- 1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더버지(The Verge)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지갑 개발사 칼리브라(Calibra)의 제품 총괄 부사장인 케빈 웨일(Kevin Weil)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지갑 칼리브라는 정부 발행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서만 사용자들의 가입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해 그는 “칼리브라는 사용자를 각종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소셜 네트워크의 광고 부서와 절대 공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즉, 사용자의 페이스북 계정 데이터는 칼리브라 계정과 별도로 보관되고 관리될 것”이라고 덧붙임

■ 미국 연준, 금리 2.25~2.50% 동결

- 20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금리결정기구인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19일(현지시각) 이틀간의 회의 끝에 정책 금리를 현행 2.25~2.50%로 유지기로 함
- 앞서 마이클 노보그라츠(Michael Novogratz) 갤럭시 디지털 CEO는 트윗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회 의장의 불신 및 갈등이 격화되며 비트코인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7월 ‘페북 리브라’ 관련 공청회 개최

- 2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가 오는 7월 1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는 미국 상원 의회의 페이스북이 고안한 디지털 통화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관계자는 “공청회가 개최됨에 따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함

■ 前 FATF의장 “FATF 암호화폐 규제 지침, 역효과 우려”

- 2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기업 규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로저 윌킨스(Roger Wilkins) 前 FATF 의장이 “FATF의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면 대중들이 기존 규제 당국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암호화폐 플랫폼을 떠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함
- 이와 관련해 그는 “새로운 지침은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를 음지로 밀어내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규제 기관들은 FATF의 권고 사항을 참고하는 한편 균형 잡힌 솔루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줘야 한다”고 덧붙임

■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 “리브라, 달러와 경쟁 허용 안돼”

- 2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인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가 CNBC에 출연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Libra)가 달러와 경쟁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함
- 미디어에 따르면 맥신 워터스 의원은 “페이스북은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개인정보침해 관련 조사를 받고 있고, 주택도시개발부(HUD)로부터 공정 주택법을 위반으로 제소됐다”라며 문제의 요지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닌 페이스북에 있다는 점을 강조함

■ CME BTC 선물 미결제약정 4일 연속 최대치 경신

- 22일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CME BTC 선물의 미결제약정(open interest, 선물·옵션계약을 사거나 판 뒤 이를 반대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선물·옵션계약)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5,827계약(29,135 BTC, 2.8억 달러 규모)을 기록했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해 CME는 “BTC 선물 미결제약정이 4일 연속으로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번 수치는 6월 14일 대비 25%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함

■ 미국 국가 암센터, 블록체인 기반 임상 데이터 관리 프로젝트 착수

- 24일 블록체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국가 암 연구 센터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임상 데이터를 관리 및 공유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료 제공자, 환자, 연구계가 공유할 수 있는 임상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힘

■ 가짜 리브라 판매 사이트 등장...공식 홈페이지와 식별 어려워

- 25일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의 공식 홈페이지(Calibra.com)와 거의 식별이 힘든 가짜 리브라 피싱 사이트가 등장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음
- 사이트에 접속하면 실제 리브라 홈페이지와 디자인 및 구성이 완전히 일치함. 단, 리브라 공식 사이트 왼쪽 상단의 ‘Get start’ 대신 토큰 프리세일(Pre-Sale Libra Currency) 링크가 자리를 잡고 있음
- 해당 링크에 접속하면 600Libra를 2ETH에, 8,000Libra를 20ETH에 판매하고 있음

■ 미국 공인회계사협회, 블록체인 데이터 회계감사 표준 제정 제안

- 2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에 대한 회계감사 표준 제정을 제안함

- AICPA 측의 ‘감사 표준 성명’ (SAS) 관련 제안서에 따르면, 회계감사 자료 작성자와 감사자는 블록체인 및 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 기반 감사 자료에 대한 평가 지침을 정해야 함
- 이와 관련해 로버트 도리 AICPA 최고 감사관은 “오늘날 회계감사에 사용되는 증거 자료는 출처의 다양성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감사자가 획득한 증거 자료의 충분성과 적절성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위해 지속 가능한 표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JP모건, JPM코인 고객 테스트 초읽기

- 2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JPM코인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마르 파루크(Umar Farooq) JP모건 블록체인 프로젝트 총괄은 최근 블룸버그 재팬과 인터뷰에서 기업 간 결제, 채권거래 등의 거래 속도를 높이기 위해 JPM코인 기술을 테스트해 볼 것이라고 밝힘
- 다만, 그는 JPM코인이 당국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임

■ NYT “리브라 파트너 기업도 규제 불확실성 우려”

- 26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페이스북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초기 파트너사 27곳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리브라 협회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보도함
- 리브라 파트너사 가운데 7명의 임원은 많은 파트너사가 리브라 운영 방향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1,000만 달러 출자 및 리브라 협회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파트너사는 1,000만 달러를 출자해야만 리브라 블록체인 노드가 될 수 있는데, 파트너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노드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페이스북이 골드만삭스, JP모건 채이스, 피델리티 등 금융사에 프로젝트 동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듯이 이미 파트너가 된 기업조차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출자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함
- 실제로 리브라 파트너사 27곳 중 가장 늦게 합류한 마스터카드의 경우 프로젝트 지지 성명서에서 ‘리브라’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마스터카드의 수많은 파트너십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으며, 다른 파트너사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우려하기도 함

■ 비트맥스, 24시간 거래량 110억 달러 상회...역대 최고

- 2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글로벌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맥스(BitMEX)의 6월 26일 24시간 거래량이 111.9억 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힘
- 미디어에 따르면, 비트맥스의 지난 2018년 거래량은 총 9,705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서 헤이즈(Arthur Hayes) 비트맥스 CEO는 7월 3일 대만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블록체인 서밋에서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와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토론을 진행함

■ 미국 CFTC 위원 “익명성 암호화폐, CFTC 규제 범위 밖”

- 28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브라이언 퀸텐츠(Brian Quintenz)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이 “모네로(XMR, 시가총액 14위) 등 익명성 강화 암호화폐는 CFTC의 규제 관할 범위 밖이다”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해 그는 “익명성 강화 암호화폐는 돈세탁, 테러 자금조달과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 금융당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

이며, 이런 이유는 해당 암호화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부각시켜 왔다. 어떤 정부도 익명성 암호화폐를 합법 규제 범위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해당 암호화폐들의 기반이 되는 영지식 증명 프로토콜에 대한 CFTC의 관점은 낙관적”이라고 덧붙임

■ 외신 “미국 행정부, 블록체인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추진”

- 28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스라엘 암호화폐 스타트업 오브스(Orbs) 공동창업자 네타 코린(Netta Korin)이 “미국 행정부, 국무부와 함께 비공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블록체인 솔루션의 잠재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근 바레인에서 열린 중동평화 워크숍에 초대받았다”고 밝힘
- 네타 코린은 “과거 기부 방식의 경제 지원이 투자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며 “블록체인 혁신 솔루션이 패러다임을 바꿀 전망”이라고 말함

영 국

■ 코인센터, 영국 재무부에 ‘AML/CFT 규제 확대’ 반대 입장 표명

- 11일 암호화폐 공공 정책 및 기술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 코인센터가 최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근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 (AML/CFT) 규정의 과도한 확대 적용 방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영국 재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코인센터 측은 “AML/CFT 규정의 과도한 확대 적용은 영국 시민들의 자유언론 및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암호 화폐 개발자 및 관련 사업체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세계 2위 보험 중개업체, 암호화폐 커스터디 보험 제공

- 1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수익 기준 세계 2위 보험 중개업체 에이온(Aon)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술기업 메타코(Metaco)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 전문가 집단을 구성했다고 밝힘
- 에이온은 자연재해로 인한 콜드 스토리지 개인 키 파괴부터 핫월렛 해킹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보상한다고 미디어는 설명하였으며, 에이온은 보험 커버리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함

■ 영국 전력 데이터 운영에 블록체인 도입 예정

- 17일 에너지 전문미디어 에너지 라이브 뉴스에 따르면, 영국 전력 당국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일렉트론(Electron)과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국가 네트워크와 연결된 현지 발전소와 전력 보관 인프라 시설들의 운영 기록을 보관하는 등록 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함

- 해당 프로젝트의 이름은 ‘RecorDER’ 로 알려졌으며, 우선적으로 1MW 이상의 수용 능력을 갖춘 전력 인프라 시설을 중심으로 유통 네트워크 운영자들을 통합할 예정임

■ 영국 중앙은행 총재 “블록체인, 수십억 파운드 유동성 공급 잠재력 가능”

- 2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크 카니(Mark Carney)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가 런던 은행가들이 참석한 연회에서 “블록체인은 운영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복원력을 높이고, 수십억 파운드의 자본과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힘
- 또한, 그는 “증권사 컨소시엄이 도매시장에서 분산원장을 활용한 결제시스템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공용결제화폐(USC, Utility Settlement Coin) 컨소시엄은 중앙은행 발행 화폐로 전액 지원되는 디지털 토큰을 활용해 실시간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는 자산토큰화, 스마트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함

■ 영국 FCA, 토큰마켓 STO 규제 샌드박스 승인

- 22일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영국 소재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토큰마켓(TokenMarket)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STO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전함
-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이는 영국에서 향후 STO는 합법적인 자금조달 방법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함

■ 영국 FCA, “리브라 백서, 정보 불충분”

- 26일 비즈니스데이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 “페북 코인 리브라 프로젝트가(백서를 통해) 공개한 정보는 리브라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다”고 진단함

- 이와 관련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FCA CEO는 “추가적인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는 한 규제 당국의 인·허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봄

■ 영국 금융상품 거래 업체 CMC마켓, 암호화폐 관련 지수 출시

- 27일 온라인 경제 전문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네이츠에 따르면, 영국 소재 금융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 업체 CMC 마켓(CMC Markets)이 암호화폐 관련 지수 3종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 3종 암호화폐 지수는 각각 △메이저 크립토 지수(Major Crypto Index) △신흥 크립토 지수(Emerging Crypto Index) △전체 크립토 지수(All Crypto Index)이며, 이와 관련해 CMC 마켓 측은 “CMC 마켓을 사용자들은 이제 3종의 암호화폐 관련 지수를 통해 암호화폐 차액결제거래(CFD)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
- CMC 마켓의 ‘메이저 크립토 지수’ 는 BTC, XRP, BCH, ETH, LTC 등 시총 기준 최상위권 암호화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흥 암호화폐 지수’ 의 경우 DASH, EOS, XMR, NEO, XLM, ADA, TRX 등 암호화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암호화폐 지수’ 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모든 암호화폐의 데이터에 가중 평균치를 적용해 산출됨

스 위 스

■ 리플, 스위스서 전략적 거점 ‘리플 스위스 GmbH’ 출범

- 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리플(XRP, 시가 총액 3위)이 스위스 취리히에 자회사 ‘리플 스위스 GmbH’ (Ripple Switzerland GmbH)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스위스에서 글로벌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임
- 리플 스위스 GmbH의 소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기관투자자 대상 XRP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거점으로 기타 국가에 지사 및 자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확장한다는 설명임
- 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스위스에는 최소 1,000개 이상의 잠재적 기관투자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리플의 스위스 시장 진출은 직간접적인 거래보다 투자금 조달이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함

■ 스위스 대형 물류회사,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 1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위스 소재 글로벌 물류회사 판알피나(Panalpina)가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해운, 항공 물류에 분야에 별도의 블록체인을 도입, 서플라이 체인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게 목적임

■ ‘크립토 국가’ 스위스, 미국과 달리 페이스북 코인에 우호적

- 25일 온라인 미디어 더스타(The star)에 따르면,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는 달리 스위스에서는 환영받고 있다고 보도함
- 스위스는 리브라의 운영 주체인 리브라 협회가 소재한 곳으로, 스위스 국제금융사무국은 리브라 협회에 대해 “스위스가 야심찬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함

- 실제로 스위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호화폐의 나라로, 이더리움 재단 등이 소재한 Zug(쥬크)시는 ‘크립토밸리(Crypto Valley)’로 불리고 있으며, 요한 슈나يدر 암만 경제부 장관은 2018년 “스위스는 더 이상 크립토밸리가 아니다. 크립토네이션(크립토 국가)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음

■ 외신 “스위스 SDX, ERC 20 증권형 토큰 6종 거래 지원 예정”

- 2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소재 증권형 토큰 개발사 블록스테이트(BlockState)의 제보를 인용 “스위스 증권거래소(SIX) 산하 디지털 증권 거래 플랫폼 SDX(SIX Digital Exchange)가 ERC 20 기반 증권형 토큰 6종을 기업형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컨소시엄 R3의 금융 전문 플랫폼 코다(Corda) 상에서 구현하기 위해 ‘패스포트(passport)’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SDX 플랫폼 내 해당 토큰들의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해 블록스테이트 측은 “올 연말까지 해당 토큰들은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를 고정하고, ‘복제(mirrored)’ 버전 토큰을 R3 코다 플랫폼에서 발행할 것이다. SDX에서 지원할 증권형 토큰 거래는 글로벌 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s) 거래와 유사한 형태로, 한 국가 내에서 유통되는 주식을 보관하고 그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다른 국가에서 거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함

중 국

■ 텐센트연구소 “리브라, 전통 통화 체계 혼돈다”

- 22일 중국의 IT 공룡 텐센트 산하 텐센트연구소(TISI)의 쉬스옌 수석연구원이 “신홍기술이 폭발적인 대중화에 이르기까지 종종 ‘누가 하는 것인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장기적으로 ‘공룡급’ 플랫폼 업체의 암호화폐 진출은 암호화폐가 디지털 세계에서 필수불가결 요소로 자리 잡게 할 것”이라며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가 여러 분야에서 리브라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리브라는 법정화폐로 바꾸지 않을 것이고 제3자 자본이 뒷받침될 필요도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통 통화 체계를 뒤흔들게 된다”고 진단함
- 그는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속성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지만, 디지털 현금이 되지는 못했다. 이와 반대로 페이스북은 ‘다자기관(multilateral organizations)’ 방식을 통해 디지털 캐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전함

■ 중국 인터넷 금융 협회, 반 자금 세탁 가이드라인 발표

- 24일 중국 인터넷 금융 협회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반 자금세탁 규제 가이드라인인 ‘인터넷 금융 종사 기구 반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리스크 관리 규제 프레임 및 가이드라인 수첩’을 정식 발표함
- 이와 관련해 협회는 인민은행의 반자금세탁 가이드라인인 ‘법인 금융 기구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리스크 관리 규정’을 업계에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중국 관영 매체 “리브라, 디지털화폐 경쟁 촉발...중국 동참해야”

- 25일 중국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가 ‘글로벌 디지털화폐 시대, 중국 동참해야’ 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리브라 출시로 페이스북은 전 세계 27억 명에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주조권’ 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일종의 독립적인 ‘중앙은행’ 이 된 것”이라고 진단함
- 이어 미디어는 “향후 페이스북은 규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당국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논의가 본격화되면 리브라는 글로벌 디지털 시장 내 ‘달러 패권’ 과 같은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또한 리브라를 통해 업계 우위를 선점할 것이며, 기타 국가들은 리브라의 침투를 막기 힘들게 된다. 중국 또한 예외는 아니며, 디지털 경쟁 시대 중국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산업 및 규제 관련 기관들은 디지털화폐 관련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하며, 심지어 디지털화폐를 장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새로운 금융 시대에 뒤처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함

일 본

■ 일본 금융청 “노후 대비 암호화폐 투자 수요 증가 전망”

- 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노후를 연금 제도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상 파산을 예고하며, 추가적으로 2,000만 엔의 저축이 필요하다”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후 대비 목적의 주식·암호화폐 투자 수요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함
- 이와 관련해 해당 미디어는 “정부가 권장하는 중장기적인 적립 투자 중심으로 2,000만 엔을 저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전통 금융상품인 주식 및 뮤추얼 펀드 이외에 소액 운용이 가능한 암호화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일본 내각부 ‘미래투자회의’ , 블록체인 활용 방안 논의

- 7일 일본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일본 내각부 산하 제28회 ‘미래투자회의’ (의장 아베 총리)에서 블록체인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밝힘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블록체인 활용안은 아래와 같음
 1.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유통
 2. 핀테크 실용화 등 혁신 기술 개발
 3. 지역·생활 분야 환경 보호 관련 블록체인 실용화 및 사업화

■ 일본 금융청 수장 “과도한 규제, 블록체인 등 기술 혁신 지연”

- 8일 일본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일본 금융청(FSA) 토시히데 엔도 금융청장이 “규제는 기술 혁신 속도에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혁신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그는 “블록체인 등 혁신금융 기술은 중개 기관 없이 직접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 금융업체는 시장 입지를 위협받을 수 있다.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일본 100개 제조업 기업, 블록체인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 추진

- 16일 일본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전자, 야스카와전기 등 일본 100개 전통 제조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생산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제품 설계 관련 데이터, 생산 설비 현황, 품질 검증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 유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영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임

■ 일본 금융청, 업무 지침 개정...IEO 규제 추가

- 2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이 업무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힘
- 추가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ICO, IEO 진행 시 프로젝트 측은 토큰 판매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비스 계획 등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IEO 진행 시 재무상황, 판매계획 심사 등 토큰 판매 적합성 판단을 위한 합리적인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일본 블록체인 업계, 페이스북 코인 토론회 개최...암호화폐 분류 여부가 쟁점

- 2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토헤럴드에 따르면, 일본 블록체인협회

(JBA)가 페이스북 스테이블코인 리브라에 관한 연구토론회를 개최함

- 업계 인사, 변호사가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리브라 및 관련 일본법 분석이 이뤄졌으며, 리브라 관련 토큰은 2종으로, 하나는 사용자가 일반 통화로 이용하는 리브라 코인, 또 하나는 파트너사(리브라 블록체인 노드)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는 리브라 인베스트먼트 토큰(증권형 토큰)임
- 현재 일본법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는 없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크게 3종류로 나뉘었을 때 리브라는 테더와 같은 IOU 모델(기본 자산과 1:1 비율로 발행되는 코인)이고,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의 암호화폐 분류 여부임
- 암호화폐로 분류되는 경우 현지 가상통화법 규제가 적용되며, 호라이즌(ZEN)처럼 금융청 인가를 받으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가 가능함

■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 신규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피드백 수렴

- 2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토헤럴드에 따르면,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협회(JVCEA)가 25일 ‘신규 가상화폐 판매에 관한 규칙(초안)’ 및 ‘신규 가상화폐의 판매 규칙 가이드라인(초안)’ 마련을 위한 피드백 수렴을 시작함
- 이를 통해 향후 업계 규정을 정하는데 있어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임. 21일 일본 금융청은 ICO 규제 지침을 개정했으며, IEO에 대한 규제 지침을 새롭게 추가한 바 있음

러 시 아

■ 러시아 3대 대형마트 체인, 블록체인 국제 무역금융 플랫폼 출시

- 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러시아 3대 대형마트 체인 딕시(Dixy) 그룹이 최근 러시아 블록체인 스타트업 팩토린(Factorin)과 공동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국제 무역금융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밝힘
- 이에 현지 은행 알파 은행(Alfa Bank)과 페르부랄스크 은행(Pervouralsk bank)도 동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휴사 간에 효율적인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임

■ 와이스 레이팅스 “러시아, 페이스북코인 사용 안 할 것”

- 8일 암호화폐 평가기관 와이스 레이팅스(Weiss Ratings)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 정부는 미국 기업이 발행하는 암호화폐(페북코인)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해 와이스 레이팅스는 “만약 러시아 정부가 미국 기업의 암호화폐 사용을 승인하게 된다면, 페이스북의 러시아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함

■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CEO “암호화폐는 미래가 없다”

- 18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인크립토 보도에 따르면, 前 러시아 경제개발무역 장관이자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스베르뱅크(Sberbank)의 CEO 게르만 그레프(Herman Gref)가 “국가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미래가 없다”고 전함
- 그는 최근 현지 TV 채널 NTV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으로 티셔츠를 구매해 보기도 했지만, 이후 월렛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서 코인도 사라졌다고 설명함

- 이에 대해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암호화폐는) 카지노 같다. 나는 카지노 플레이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그는 비트코인이 투자상품보다는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는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미디어는 설명함

러시아, 금융시장위원장 “러시아, 페이스북 리브라 합법화 불가능”

- 20일 야후파이낸스가 러시아 현지 미디어 타스 통신의 보도를 인용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러시아 하원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가 러시아 국경 내에서 합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 아나톨리 위원장은 이날 “개방형 플랫폼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활용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또한 채택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함

기 타

■ IMF 총재 “암호화폐 규제 감독, G20 공동의 책임”

- 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최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암호화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포괄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우리(G20)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함
- 그는 이와 관련해 “기술은 항상 금융의 발전을 촉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며 “다만, 이러한 혁신들이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소수에게만 이익이 될 것인지는 문제다. 올바르게 다뤘을 때 해당 기술은 핀테크 비용을 줄이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려는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G20 공동 성명 “암호화폐,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위협요소 아니다”

- 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재팬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발표된 암호화폐 관련 공동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금융시스템뿐만 아니라 경제체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2. 현재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지만,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의 보호 정책은 필요하며, 자금세탁·테러 자금원조 등 리스크는 여전히 경계 대상임
 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회원국 소재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수립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준수할 것임

■ 외신 “암호화폐 거래소, 평균 수명 18개월”

- 1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AMB크립토가 에이알케이인베스트(ARK Invest) 소속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야시네 엘만드라(Yassine Elmandjra)가 발표한 통계 데이터를 인용 “암호화폐 거래소의 평균 수명은 18개월에 불과하며, 그중 상당수가 해킹, 관리 부실, 비트코인 도난 등 난관에 부딪혀 운영을 포기하는 형국”이라고 보도함
- 야시네 엘만드라가 발표한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각국에서 약 50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폐업했으며, 그중 업계 내에서 이슈가 됐던 거래소는 크립토피아와 마운트곡스 등이 있음
- 또한, 올해 들어 폐업을 결정한 거래소는 Coinome, Coinpulse, Coinnest, Coinroom, Liquid Exchange, QuadrigaCX, Cryptopia, Gate coin으로 총 8곳으로, Coinome, Coinpulse 등 거래소는 경영 관련 문제로 폐업을 결정한 반면, 대규모 해킹 피해로 인해 폐업을 결정한 크립토피아 및 마운트곡스 등의 사례도 더러 존재함
- 미디어는 “거래소가 문을 닫고, 해킹 피해가 생길 때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반적인 보안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운트곡스가 파산했을 때와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각종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임

■ BTC 점유율 60% 돌파...2017년 이후 최고

- 26일 BTC가 지속 강세를 나타내며, 글로벌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중 BTC의 점유율이 60.1%를 기록함. 이는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최고치임

회원사 동향

[2019. 6월]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 동향

빗썸, 2019년 7월부터 ‘자금세탁 방지센터’ 운영

빗썸 자금세탁 방지센터는 거래사이트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
 △고객확인(KYC) 강화 △의심거래보고 및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구축 및 강화
 △관련 사고 및 분쟁처리 대응 △대외 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자금세탁 방지센터는 내·외부 전문인력 30명으로 구성



BLOCKCHAIN 동향과이슈

2019.7월 제9호